

진리는 먼 곳에 있지 않다

꽃을 피었다가 과감하게 꽃잎을 떨어뜨리는 재스민 꽃잎처럼, 그대 불자들이여! 탐욕(貪), 분노(嗔), 어리석음(痴)을 과감하게 떨어뜨리라.

“올라가는 길을 볼 때는 ‘높은 경지에 올라야겠다’라는 마음을 갖고, 내려가는 길을 볼 때는 ‘진리의 매우 깊숙한 곳까지 이르러야겠다’라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. 흐르는 물을 볼 때 ‘진리의 길을 따라 부처님 세계에 들어가야지’라는 생각을 하고, 우물을 볼 때 ‘그윽한 진리를 마셔 최상의 가르침을 완성해야겠다’는’ 서원을 세워야 한다.”
-----화엄경